

탄소 배출 저감 효과 탁월...광주산 기아 스포티지 HEV 뜀다

한국 탄소배출 감소에도 수송부문은 늘어...SUV 차량 판매 증가 영향
한국자동차연구원 “하이브리드·친환경 트럭 등 보급 확대 검토 필요”

한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은 줄었지만 등 수송 부문만큼은 여전히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중량 차량 판매가 늘면서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차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이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연구원)이 발표한 산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수송 부문 배출량은 3.7%

증가했다. 수송 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16.6%를 차지했으며 전력 부문(4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도로 교통이 수송 부문 배출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 탄소 배출은 개인 소유 차량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개인 소유 차량에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신차 친환경화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긴 수명 주기로 인해 단기간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SUV 판매 증가세까지 겹치며 배출량 감소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 SUV는 일반 중형 승용차보다 차체 중량이 200~300kg가량 무거워 탄

소 배출량이 20%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송 부문 탄소 배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실적인 전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 대비 연비와 배출량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보다 판매량이 훨씬 많아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스포티지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연료 효율과 배출 저감을 동시에 노린 차종이다.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국

202만 4481대로, 전년(154만 2132대)보다 31%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추세와 수송 부문 탄소 저감 대책이 다각화된다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수송 부문 배출량 감축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들어 하이브리드 전략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 대중화를 통해 수송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차량 연비 역시 2000년대 초반 대비 80% 이상 개선됐다. 일본 내 전기차 보급률은 낮지만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만으로도 수송 부문 배출 감소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노후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의 대책으로 수송 부문 탄소 저감을 이끌어냈다. 친환경 트럭

산업도 함께 육성해 탄소 감축에 힘썼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단일 해법이 아닌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을 단기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노후 차량 교체 지원과 교통 시스템 개선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같은 모델은 국내 탄소 감축의 해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차는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대비 3.5배 많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효과적인(탄소) 단기 감축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중국 사례와 같이 하이브리드 차와 친환경 트럭 등의 보급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TS,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전국 14개 본부에 전문인력 배치
통학버스 4만대 불법개조 등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안전 점검에 참여해 영유아의 등·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주어진다. TS는 점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S는 2018년부터 자동차안전단속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26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 개조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4만여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했다.

특히,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승차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안전신문고 신고와 연계해 신속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TS는 또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교육과 법령 교육을 병행하고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관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하고 있다. TS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TS 제공)

정용식 TS 이사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온 직원들의 헌신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유아가 안심하고 통학

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기차 자체 보조금 800만원...르노코리아, 세닉 E-Tech 할인

르노코리아는 22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응해 자체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E-Tech’ 고객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국·비·자

자체 보조금 총액의 평균치다.

아울러 르노코리아는 연말을 맞아 세닉 E-Tech 구매 고객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르노코리아 고객이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세닉 E-Tech 할인액은 최대 1550

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닉 E-Tech는 유럽 시장에서 호평받으며 ‘2024 유럽 올해의 차’에 오른 모델로 올해 국내에서는 999대가 한정 판매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 AI 로봇릭스 생태계 전략 공개

CES 2026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첫 실물 시연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여해 인공지능(AI) 로봇릭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중심으로 그룹사의 기술과 자원을 결집해 AI 로봇릭스 상용 가속화 전략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CES 2026 미디어데이에서 최첨단 AI 로봇릭스 기술 실증, 인간·로봇 협력 관계 구축 방안,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조성하는 AI 로봇릭스 생태계, 제조 환경에서의 활용·검증을 통한 사업 확장 전략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현장에서 처음

으로 실물 시연하며 AI 로봇릭스 전략의 주요 사례를 제시한다.

현대차는 또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을 활용해 로봇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로봇릭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도 발표한다. SDF는 제조 전 과정에서 미래 제조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팩토리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를 토대로 AI 로봇릭스·부품·물류·소프트웨어 등 밸류체인 전반을 통합 관리해 로봇 개발부터 학습·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국차 편견 깨나...BYD ‘씨라이언 7’ 판매 호조

3개월간 2018대 판매...성공 여부 미지수 분석

중국 전기차 비야디(BYD)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다만 국내 전기차 순위는 여전히 10위권 진입에 실패하며 성공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22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시된 비야디의 중형 SUV 전기차 ‘씨라이언 7’의 초반 3개월 신차 등록 대수는 2018대로 조사됐다.

씨라이언 7은 3개월간 2000대를 넘기며 선전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1위 차종인 테슬라 모델 Y(1만 8253대)와 비교하면 9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소비자 유형 비율은 개인 83.3%, 법인 차 16.7%이며 용도별로 자가용이 95.2%, 택시가 24대 등록됐다. 씨라이언 7을 구매한 개인 소비자 성

별 비율은 남성 79.3%, 여성 20.7%였고 나이별로 40대와 50대 구매자가 각각 34.4%, 34.5%로 가장 많았다.

출시 초반 신차 효과를 발휘한 씨라이언 7은 비야디 아토 3의 첫 3개월(1270대)보다 좋은 성적 거두며 브랜드의 주력 차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씨라이언 7이 판매된 3개월 동안 국내 전기차 순위에서 11위에 이름을 올리며 10위권 진입에 실패해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관계자는 “신차 효과 이후에도 월평균 400~500대 수준의 판매량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가 씨라이언 7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해나 기자 khn@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든든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